

번호 05-5

제 목	국문	의료보호정신질환자의 입원이용양상 -1992년부터 1998년 의료보호자료를 중심으로-			
	영문	Psychiatric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of medical aid beneficiaries (1992-1998)			
저 자 및 소 속	국문	신영전, 유원섭, 박실비아*, 이평수*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문	Young-Jeon Shin, Won Sub Ryu, Sylvia Park*, Pyung Soo Lee* D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 표 형 식	구 연 (○) 포 스텐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식기 : 1999 년 10 월				

1. 연구 목적

현재 일당정액제방식의 진료비지불보상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진료비 증가양상의 중요 원인 중의 하나인 의료보호 정신질환자의 연도별 입원이용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의료보호 정신질환자의 합리적인 입원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

2. 연구 방법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의료보호 정신질환자의 입원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액제 입원자료를 이용자별 자료로 전환하고, 다시 일정기준에 의하여 에피소드 파일로 전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입원이용양상을 파악을 위하여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입원이용자수 및 대상자 증 비율
- 연도별 입원진료비
- 연도별 입원이용자당 진료비
- 연도별 에피소드당 총진료비
- 연도별 에피소드당 입원일수
- 입원이용자 100명중 퇴원자수

3. 연구 결과

1. 연도별 입원이용자수 및 대상자 중 비율은 1992년 11,103명(0.51%), 1994년 15,42명(0.82%), 1996년 14,011(1.09%), 1998년 20,023(1.05%)로 점차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인간문화재 등 법정본인부담금이 없는 1종 의료보호환자의 입원이용자수가 증가하였으며 입원시 20%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대폭적인 대상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 의료보호 정신질환 입원진료비는 1992년 17,174,712천원에서 1998년 75,013,026천원으로 4.4배 증가하였다. 연도별 입원이용자당 진료비는 거택보호자의 경우 7.3배, 시설보호자 3.5배, 인간문화재 등 3.5배, 행려자 3.4배, 자활보호대상자는 3.6배 증가하였다.

3. 연도별 입원이용자당 진료비는 1992년 1,546,853원에서 1998년 3,746,343원으로 2.4배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거택보호대상자 2.4배, 시설수용자 2.3배, 인간문화재 등 2.1배, 행려자 2.4배,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2.4배 증가하였다.

4. 연도별 에피소드는 1992년 590건에서 1998년 1,044건으로 1.77배 증가하였고, 에피소드당 총진료비는 1992년 1,101,125원, 1998년 2,681,231원으로 2.43배 증가하였다.

5. 연도별 에피소드당 입원일수는 1992년 99.36일에서 98년 121.5일로 1.38배 증가하였다.

6. 입원이용자 100인당 퇴원자수는 1992년 5.31명, 1998년도에 5.2명이었다.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고 찰

1992년이후 최근까지 의료보호 대상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의료보호환자의 형태로 잔류하거나 편입되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거택보호대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에피소드당 진료비는 2.43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에피소드당 입원일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의료보호대상자의 정신질환입원서비스의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증가에 지속적인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마다 입원기간이 연장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향후, 입원연장 경향의 의학적 적절성 검토, 소비요인 및 공급요인이 정신과 입원이용에 미친 영향, 본인부담금이 의료의 이용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입원연장 가능성을 방지하기 정책안 개발이 필요하다.